

	보도자료	발신일 : 2025년 5월 22일 (목)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담당자 : 정주영 보좌관(010-6747-1246), 김소연 선임비서관(010-9727-9697)		
매수	2	별첨
		현장사진 2매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해운업계와의 정책 간담회 부산에서 개최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현...부산이 해양산업의 허브 되도록 뒷받침하겠다”

-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부산 해운업계와 정책 간담회 진행
- SM상선 · 흥아해운 · 부관훼리 등 주요 선사 관계자 참석, 업계 건의사항 전달
- 전재수 위원장 “부산,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 위원장, 부산 총괄선대위원장)는 5월 21일(수), 부산에서 해운업계와의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 위원장이 직접 한국선원센터와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SM상선, ▲흥아해운, ▲범주해운, ▲부관훼리, ▲팬스타라인, ▲썬라이즈탱커, ▲동아탱커, ▲영창기업사, ▲우진선박, ▲케이엘씨에스엠, ▲지엘비해운부산, ▲씨로드쉽핑엔에이젠시, ▲리앤쉽핑, ▲제이에스엠인터내셔널, ▲범진상운, ▲지마린서비스, ▲포스에스엠, ▲세진선박 등 주요 선사 임원과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장을 비롯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운·조선업계의 현안과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이전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업계는 ▲외국선주사 대상 대형선박관리 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 ▲K-선박 MRO(Maintenance Repair Opreation, 정비·수리·운영)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수출산업화, ▲해사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해외취업선원 활성화 등 다양한 의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전재수 위원장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이라며, “해양강국 대한민국 실현과 부산의 해양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부산은 세계 해양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며,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해운업계와의 정책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해운·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첨부. 현장사진 2매

